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

## 文, 헌법기관장 청와대 초청 외교성과 설명, 현안 등 공유

“한국, 국제적 위상 아주 높아져 유럽처럼 외교 역할분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한·미 정상 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최근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방역, 경제, 민생 등 현안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법관을 겸임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상 외교 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자 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가 (가진) 고민을 다른 국가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 불평등,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공정한 전환이 될지 등은 전 세계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

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는데 우리에게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을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고, 앞으로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사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회담 당시 방역 협력, 반도체·배터리·이동통신·백신 등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더욱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정상 외교 성과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김부겸 총리에게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 등이 있으면 국회와 사전에 꼭 협의를 해달라. (특히) 야당에 성의 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률, 국민의 협조와 희생을 고려하면 이제는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언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국회 찾은 윤석열, 부인 질문엔 말 아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 다음날인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기자들과 접촉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다만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소통관 국회 기자실에서 여러 매체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개인사 등 의혹을 반박한 데 대해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 쟁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일신상 이유로 자진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이 금품수수의혹으로 입건된 건과 관련 “본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입장장을 밝혔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전날(29일) 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

치 참여 선언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두루뭉술했다’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 ‘어제(29일)는 제가 국민께 정치에 나서는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훌륭한 분과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 한국의 현실, 현안을 잘 살펴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많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 산업생산 0.1% 소폭증가 그쳐 소비, 10개월만에 최대 감소폭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영향

비오는 날 잦아 여름의류 판매 ↓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 소비 줄고 면세점 48%, 백화점 18% 늘어

5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는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전 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최근 전 산업생산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8% 감소하며 지난해 7월(-6.1%)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3월(2.5%)과 4월(2.1%) 모두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최근 잦은 비가 오는 등 날씨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 의류 판매가 줄고, 의복 등 준내구재가 8.8%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0.4% 줄었다.

특히 영세한 동네 상권 위주로 소비가 크게 줄었다.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전문소매점은 -3.7% 각각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48.5%)과 백화점(18.2%), 무점포소매(12.2%)는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5% 감소했고,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4.1%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에 반도체(5.3%) 생산이 선

산업생산·소비·투자 추이

전월비, 단위:%

8 100=2015년

6.3

4

2.7

0.9

-0.3

-2

-4

-6

-8

2020.11월 12 2021.1월 2 3 4 5

5월 생산 주요품목 증감

전월대비

반도체

자동차

수박·음식점

도소매

-6.6

2.5

-1.3

자료: 통계청

/뉴스 그래프

방했지만, 자동차(-6.6%), 기계장비(-5.6%) 등이 줄었다.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업은 0.2%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점(2.5%)은 늘었지만, 도소매(-1.3%), 금융·보험(-1.0%) 등이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달 전 산업생산은 소매판매, 투자가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며 “전월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인해 조정을 받은 영향이 있고, 최근의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택배기사·보험설계사, 오늘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을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 12개 직종이 대상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

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고용보험요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뺀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경우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직장을 잃은 특고는 실업급여도 받는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 사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이 많을 경우 120일까지 지급된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다.

/세종=원승일 기자

## ‘불공정 하도급’ 신태양건설에 과징금 1억

공정위 “지위 이용 부당이익 쟁겨”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주)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중 미분양

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선앤문은 앞서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쳤고,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겼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

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나, 하도급업체는 결국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